마루베니상사, 3개년 중기('25~'27년) 전략 발표

최근 3개년 매출: '21년 8조 5,086억엔 → '22년 9조 1,905억엔 → '23년 7조 2,505억엔('22년 미국 곡물사업 매각 영향) 영업이익: '21년 2,845억엔 → '22년 3,408억엔 → '23년 2,763억엔

✓ 2월 5일 마루베니는 주요 과제 및 투자 계획(1조 7,000억엔 규모) 등이 담긴 3개년 중기 전략을 발표

- '기존 사업 체질 개선'과 '사업 포트폴리오 조정'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였고, '27년까지 순이익 6,200억엔 ('24년 추정 대비 +1,200억엔), ROE 15%(기존과 동일) 등의 재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발표
 - ① 기존 사업 체질 개선: Core Trading(식품, 에너지, 화학) 분야는 AI/DX를 활용하여 운영 효율성·생산성 향상
 - ②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: 정체된 사업은 매각하여 6,000억엔을 확보하고, 전략적 육성 사업과 인프라, 자원·원자재, 미래 사업에 1조 7,000억엔을 투자하여 사업 포트폴리오 최적화

[주요 투자 계획]

분야	내용	투자 규모
전략적 육성 사업	 성장성과 확장성(제품/서비스/거점 등의 확대)이 높은 사업*에 집중 투자 * Agri-inputs(비료, 제초/살충제, 종자 등) 유통, 북미 Mobility 사업(차량 유통, 서비스/부품 공급 등), 전력 도·소매 Trading 등 작은 규모의 기업을 다수 인수하여 사업 규모를 키우는 'Roll-up 전략'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언급 	1조 2,000억엔
인프라	• 수익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선별하여 추진하고, 투자금은 외부 조달 방식을 적극 활용	2,000억엔
자원·원자재	• 비철 광산, 가스전 등 기존 자산의 원가 경쟁력 강화에 적극 투자	2,000억엔
미래 사업	• '30년 이후 마루베니 사업의 중심("Future Pillars")이 될 분야에는 투자 지속 :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낮더라도 성장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적극 육성 기존 사업 연관성 高 • New Energy: 수소/암모니아, SAF(지속가능한연료), 탄소포집 • 헬스케어/의료 - 중동 제약 유통 기업 Lunatus 투자('22.6월) - 인도네시아 최대 사립병원 그룹 Siloam 협약 체결('25.1월) • 사회 인프라	1,000억엔
Мв	존 사업 관성 低 - 방글라데시 IT 기업 BJIT 투자('23.4월) - 에스토니아 ESS 기업 Skeleton Technologies 투자('23.7월) - 소비재 - 캐나다 커피 브랜드 Tim Hortons 동남아 프랜차이즈 사업('23.3월) - 베트남 식품 기업 AIG Asia Ingredients Corp. 투자/협업('23.10월) - 인도네시아 의료소모품 기업 PT One-ject 투자('23.11월) - 미국 생활용품 브랜드 관리 기업 R.G. Barry Corp. 투자('24.6월)	

【 주요 출처 】